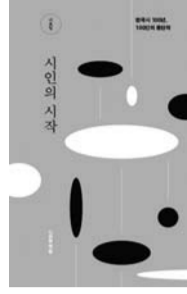


한국 시 100년, 100명의 등단작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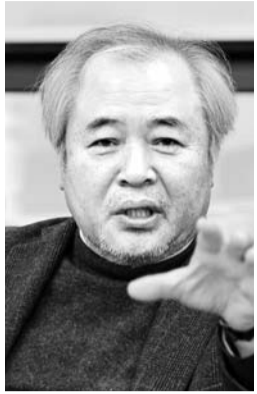
조태일·송수권·곽재구 등 포함
시선집 '시인의 시작' 출간
1920년 김소월-2019년 성다영
오늘 시가서 과거 100년 돌아봐



조태일 시인



송수권 시인



황지우 시인



곽재구 시인

김영랑, 김지하, 조태일, 최하림, 이상부, 송수권, 고정희, 황지우, 곽재구, 나혜철 등...

이들은 지역을 넘어 한국 문학을 풍성하게 일궈낸 남도를 대표하는 시인들이다. 한국 현대시 100년 역사에서 반드시 거명될 만큼 문학성을 인정받는다. 독자들 또한 이들의 등단작을 비롯한 대표작 한두 작품을 알고 있을 정도로 친숙하다.

한국 현대시 100년을 관통하는 100인의 등단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국내 최초 시(詩) 큐레이션 앱인 '시요일'이 가려 뽑은 시선집 '시인의 시작' (미디어창비)은 현대시 100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집이다. '시요일'은 출판사 미디어창비에서 제공하는 시 큐레이션 서비스다. 시인들이 직접 엄선한 시를 배달하고 추천하는 기능 등이 있으며 고시조부터 현대대표시에 이르는 4만3000여 점의 시가 수록돼 있다.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100명의 시인 100

개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무엇보다 선집은 등단 연도의 역순으로 시가 수록돼 있어 오늘의 시작에서 과거 100년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2019년 등단 후 자신만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성다영을 비롯해 1920년대 김소월에 이르기까지 아우른다.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돌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뻗질한/ 은결을 돋우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빙글돌 듯/ 마음이 도르르 숨어 있는 곳/ 내 마음의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의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은 1930년 '시문학' 창간호에 발표된 영랑의 등단작이다. 강진 출신의 김영랑은 이 시를 계기로 '영랑시집', '영랑시선' 등을 간

행하는 등 남도 서정에 현대적 감수성을 접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태일의 '아침선박'은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등단작이며, 최하림의 '빈약한 율폐의 회상' 역시 1964년 같은 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다.

1981년 중앙일보 당선작인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는 막차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애환을 통해 시대의 우울함과 삶의 연민을 그렸다.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그리움과 남도의 한의 정서를 세련된 언어와 감수성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등단작은 시인의 문학적 역량 뿐 아니라 문학을 지향했던 시인들의 열정과 '첫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2020년 오늘날의 관점에서 지나는 100년의 시와 향후

100년의 시의 방향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이번 시집에는 김소월, 이육사, 백석, 오장환, 윤동주, 박목월, 박두진 등 우리 현대시사에서 '전범'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뛰어난 시를 썼던 시인들의 등단작도 담겨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로 시작되는 윤동주의 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시인의 내면을 엿보게 한다.

이번에 책에는 강은교, 정호승, 김혜순, 기형도, 허수경, 안도현, 이문재, 함민복 등 독보적인 시 세계를 열어왔던 시인들의 등단작도 만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설날 연휴, '반가운 얼굴'을 TV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대표 지식인이자 영원한 문학청년인 이어령(87) 전 문화부 장관이다. 지난 2006년 4월 광주일보 창사 54주년 특별 대담을 나눴던 '인연'이 있던 터라 채널을 고정해 재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JTBC 토크멘터리 형식의 '헤어지기 전 몰래하고 싶었던 말-이어령의 백년서재'에 출연한 선생은 예의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젊은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우리 때는 총성이 들리는 전쟁이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총성이 들리지 않는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 같다. 혼자서 꾸민 꿈으로 끝나지만, 같은 꿈을

이 됐다. 그렇다고 디지털 문명과 담을 쌓고 살 수도 없는 일... 이런 기술문명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그의 감성을 융합한 디지털그라프라고 답했다. 이미 선생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디지털그라프 후기 정보화 사회의 키워드가 될 것임을 내다 본 것이었다.

이날 방송에서 사제로 제시한 아마존의 온-오프라인 매장 협업이 바로 디지털그라프 개념이다. "한국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고 외쳤던만(그러지 못해)아쉽다. 빨리 사람들이 케치해서 대응했으면 알파고도 한국에서 나왔을 지 모른다. 인간보다 잘 뛰는 말을 이기려면 올라타야 한다. 뒤쫓

'이어령의 백년서재'를 보고

꾸는 사람이 두 손으로 잡으면 현실이 된다. '페넌토 모리'를 기억하라. 죽을 만큼 절박하고 중요한 게 없다. 그래야 산다는 게 뭔지 안다. 사막의 갈증을 느낀 자가 물의 맛, 삶의 맛을 알게 된다."

여느 때와 달리 이날 선생의 목직한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난해 해암 안고 받은 후에도 함암치료를 거부한 채 살고 싶은 이야기를 집필하는 라 혼신의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

문득, 선생과 나눴던 '그때의 인터뷰'를 다시 찾아 읽었다. 당시 선생은 '디지털그라프'라는 책을 통해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날로그니, 디지털이니 하는 말 자체도 어려워 '디지털그라프'(Digilog)는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내 첫 질문에 "언제부터가 디지털 문화가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하면서 '기술'만 있고 휴머니티는 사라져 버린 각박한 세상

아가면 뒷밭에 차여 죽는다. AI도 그렇다. AI에 올라타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과 기계가 못하는 걸 합쳐야 한다. AI를 두려워 말라. 내가 올라타면 너는 천리마가 된다."

설날 연휴, 선생의 해안을 접하니 새삼 마음 가짐이 달라진다. 무엇보다 당시 특별대담의 또다른 의제였던 '문화광주의 미래'를 향한 선생의 애정 어린 조언이 생생하게 떠올라서다.

"흔히 그 도시가 '문화도시' '아니다'라는 기준은 시민들이 '문화의식'에 달려 있다. 우리가 파리를 예술의 도시라고 부르는 건 스카프 하나라도 멋지게 두르는 파리인의 미의식 때문이다. 문화수도의 첫걸음은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는 시민들의 몫이다."

비록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젠 광주가 답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개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문화적으로' 바꾸자.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월 10일까지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한 '2020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네트워크 지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등 5개 사업이다.

지역특성화,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일반 공모와 기획공모로 세분되며 기획공모는 성과평가를 통해 3년간 연속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도내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8억 5000만원이다.

또 2019년부터 시작된 유아문화예술교육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모접수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개원 5주년 문화전당 홈페이지 새 단장

방문객 분석 사용자 중심 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됐다.

개원 5주년을 맞이하는 ACC는 홈페이지 방문객을 분석해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홈페이지 콘텐츠를 크게 ACC 서비스, ACC 어린이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개로 분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미디어의 다양성과 사용 환경 최적화를 고려해 PC나 스마트폰 등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 크기와 메뉴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을 도입했다. 또한 올해는 홈페이지 개편 뿐 아니라 유료회원제 도입에 따른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가상현실(VR) 체험관, 큐레이팅 등 정보화사업도 추진했다.

ACC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아시아와의 소통 채널인 다국어



사이트(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등 5개 국어)도 재재비해 오는 31일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 ACC 홈페이지 회원 수는 5만4957명이며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364만6438명이다.

또한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말 5만4770건이 등록 서비스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아카이브'는 만족도 조사 결과 2019년 72.6점으로 2018년 70.1점 대비 2.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리커버는 새표지, 슬로푸드는 정성음식

국립국어원 우리말 대체어 선정

'리커버'와 '슬로푸드'를 대체할 우리말로 '새표지'와 '정성음식'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리커버'는 이미 출간된 책의 표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다시 출간하는 일을 뜻한다. '슬로푸드'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만든 음식으로, '즉석음식(패스트푸드)'에 상대되는 말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국립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삼열)은 '2020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3월 5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 청소년 국악체험' 과정별 신청 대상은 1박 2일 과정은 전남의 문화소의 지역, 농어촌학교가 신청가능하고, 당일 과정의 경우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

청 받는다. 1박 2일 과정은 국악배우기, 국악공연관람과 더불어 진도지역의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문화탐방을 제공한다. 당일과정은 1박 2일 일정과 연계해 국악공연관람과 민속놀이체험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양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공학, 택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남약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완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염가제공 ☎061-285-0444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공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010-7186-6894	자동차 배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학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향촌 서구 상무회원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병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됨!! ☎061)333-4514, 010-3620-7268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다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완도전복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시부터 ☎ 010-6778-933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